

Someone has said that in most churches and denominations today, especially in the Western world, mission comes very low on the agenda – under “Any other business” rather than “Matters arising”. Paul’s concern in writing this letter is that the Roman church should put God’s mission to the world on their agenda. He wrote Romans to establish Christians at the very heart of the Empire in his gospel, so that they would embrace that gospel with him and send him out with it to the Western world. I hope we are all familiar with the idea that every member is a minister, in keeping with the biblical teaching on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 but we need also to recognise that every member is a missionary. Whatever gifts God has given to us as a Church here at Canterbury, we are partnering together to get the gospel out into the world. That is what the church is, and that is what Israel was supposed to be – God’s missionary task force, together with God bringing the gospel to the world.

If God’s people are sharing together in God’s mission to the world, what will this look like? 4 things:

1. Proclaiming Christ

First and foremost, mission is proclaiming Christ. This comes out very clearly in Paul’s words: “from Jerusalem all the way around to Illyricum I have fully proclaimed the gospel of Christ” (v. 19). We must never forget that mission is essentially proclaiming Christ. The language that Paul uses to describe this activity is not what we might expect: “I have written to you.....because of the grace God gave me to be a minister of Christ Jesus to the Gentiles with the priestly duty of proclaiming the gospel of God, so that the Gentiles might become an offering acceptable to God, sanctified by the Holy Spirit” (vv. 15-16). This is the language of Old Testament worship – it is temple terminology.

Is that the way you see evangelism? Have you ever thought of missionary work as worship? People sometimes drive a wedge between evangelism and worship, but according to Paul here, evangelism is worship. To him, proclaiming the gospel of God to the Gentiles is his priestly duty, and those who are converted under his ministry are an offering he is bringing to God. They have been set apart by the Holy Spirit under his preaching, and he brings them to God as an offering of worship. Priestly ministry is not offering a sacrifice at an altar – it is proclaiming Christ.

When Paul writes to the Corinthians about the Lord’s Supper, he says,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1 Corinthians 11:26). The Lord’s Supper is a visible gospel sermon.

In the ancient world, the division between Jew and Gentile was huge, and yet in Christ and through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that wall has come down. The proof of that is the collection, the “contribution for the poor among the Lord’s people in Jerusalem”, that Paul refers to in v. 26. It is a powerful demonstration of God’s grace. While Paul has been travelling around the eastern

어편이는 말하기를 특히 서구사회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교파들이 선교에 관심이 적다고 합니다 - 중요한 미팅에서 단지 언급되어지는 정도일지 모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의 관심은 로마교회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그들의 과제로 삼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로마 왕국의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자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받아 들이고 그를 서구세계에 복음과 함께 보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모든 교인들이 목사이고,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직위에서 성경적 가르침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모든 교인들이 선교사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 캔터베리에서 교회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던지, 우리는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동역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또한 이스라엘이 해야 했던 것입니다 - 하나님의 선교사는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세계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세계에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해 나간다면,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1.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첫번째로 주요한 것은 선교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에 아주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 하게 전하였노라”(19).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선교의 본질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묘사하기 위해 바울이 사용 하는 언어는 우리가 예상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15-16). 이것은 구약 예배의 언어로 성전 전문용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복음주의를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선교를 예배로서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사람들은 때때로 복음주의와 예배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따르면, 그의 사역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데려가는 연보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 아래에서 성령님에 의해 따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예배의 연보로써 하나님에게 인도합니다. 제사장적 사역은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찬식에 대해 바울이 말하길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26). 성찬식은 눈으로 볼수 있는 복음 설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구분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설교를 통해 그 벽은 무너졌습니다. 그것의 증거는 26 절에 바울이 언급한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의 모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과워풀한 증명입니다. 바울이 지중해 동쪽을 교회를 세우면서 여행하는 동안에, 그 또한 박해와

Mediterranean, planting churches, he has also been taking up a collection, an offering from the Gentiles for Jewish believers in Jerusalem who are suffering from persecution and famine. In vv. 26-27 he reminds these Gentile churches of their indebtedness to the Jewish people. We Gentiles have received so much from the Jews' treasure house – their Scriptures, their Messiah, the covenants and the promises – and to all these things we were once strangers! The “collection” proves the power of God to reconcile people to himself and to each other.

When Paul says that he has “fully proclaimed the gospel of Christ” from “Jerusalem all the way around to Illyricum”, he obviously doesn't mean that every single person living there has been saved. His policy was to go to strategic population centres and plant churches. He planted a church in Ephesus, for example and then that church planted churches in the Lycus valley. There were about 11 churches in that valley including Laodicea and Colossae. And so it went on. He says at the beginning of his letter to the Romans: “I thank my God through Jesus Christ for all of you, because your faith is being reported all over the world” (Romans 1:8). Imagine what these cities like Rome, Ephesus, Corinth, Thessalonica must have been like under the Roman Empire! There would have been people from Spain, Algeria, Libya, Egypt, Ethiopia, Iran, Iraq, Turkey, Armenia, Ukraine and Saudi Arabia. They had contact with Russia, India, Thailand and the great civilisations of China. The streets of the Empire's cities were even walked by the descendants of a million slaves that Julius Caesar had brought from the northern regions with their warlike, primitive people. And as the gospel penetrated such diverse communities, people came together and sat around the Lord's Table, all one in Christ! This was reported all over the world.

2. Pioneering

Secondly, mission is pioneering. “It has always been my ambition”, says Paul, “to preach the gospel where Christ was not known” (v. 20). Star Trek fans would say, “to boldly go where no one has been before”, and for them, of course, the final frontier is space. That was Paul's great ambition: “to boldly go where no one had been before” with the gospel! Not necessarily because he was an adventurer, but because the Scripture compelled him to. It is great to have ambition, but make sure your ambition rests on the foundation of Scripture! Paul's ambition came right out of the Scriptures: “as it is written: those who were not told about him will see, and those who have not heard will understand” (v. 21). He is quoting here from Isaiah 52, one of the Servant Songs speaking about Jesus, the Suffering Servant. Jesus came as a missionary, and he wants his followers to be the same. That is why he gave us the Great Commission!

When the London Missionary Society interviewed David Livingston, he was asked where he wanted to go. He replied, “Anywhere as long as it's forward”. When he arrived in Africa, he wrote home

궁주립에 고난받는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의 연보를 받았습니다. 26-27 절에 바울은 이방 교회들에게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들의 부채를 상기 시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보물상자로부터 아주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때 낯선자들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금은 사람과 그를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힘을 증명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과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말할때 그것은 거기에 사는 모든 개개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의 방법은 전략적 인구의 중심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는 에베소서에 교회를 세웠고 라이코스 골짜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라오디아와 콜로세서를 포함한 11 개의 교회가 그 골짜기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서두에 말하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로마서 1:18). 로마, 에베소서, 고린도, 데살로니카들이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에서 어떤 도시였을지를 상상하십시오. 거기에는 아마도 스페인, 알제리, 리비아, 이란, 에디오피아, 이라크, 터키,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사우디 아라비아 등에서 온 사람들이 그 도시들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러시아, 인디아, 타일랜드 그리고 문명화된 중국까지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국의 도시의 길은 줄리어스 시저가 북쪽에서 데려온 호전적이고 원시적인 백만노예들의 후손들이 걸어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다양한 커뮤니티를 관통했고, 사람들은 함께 나와 주님의 만찬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2. 개척하는 것

둘째로 선교는 개척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고 바울은 말합니다(20). 스타트랙 팬들은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는것” 이라고 말할 것이고 물론 그들의 마지막 미개척지는 우주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거대한 포부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복음을 들고 담대히 가겠다!” 그것은 그가 모험가 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그로 그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포부를 가진다는 것은 위대한 것이지만 여러분의 포부가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바울의 포부는 성경에서 왔습니다: “기록된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21). 그는 고난 받으신 종인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종의 노래들중 하나인 이사야서 52 장 말씀을 여기에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선교사로 오셨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와 같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교의 대사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런던 선교 협회가 데이비드 리빙스톤을 인터뷰했을때, 그는 그가 어디로 가길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곳 어디든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saying that he was “haunted by the smoke of a thousand villages” stretching out before him. All those communities where there was no gospel church; all those people who were without hope and without God in this world. These things haunted him and disturbed his sleep. Now you might think that after so many centuries of missionary activity, no one really needs to pioneer today. There would be nowhere left for us to go with the gospel. Well, you would be completely wrong. The need is ten times greater today than it was in Paul’s day – there are ten times as many unreached people in the world now as there were in Paul’s day. About 8 million Muslims in Europe are unevangelised. Dozens and dozens of people groups are without a Bible in their own language, and there are whole nations without a church. That is the world we live in.

Most of us spend most of our time with those who already know the gospel. In any community there are people who never darken the door of any church. Who are they? Who are the people we are not reaching, and where are they? I read of one church plant in Sydney which began meeting at 2.00am on Tuesdays in order to reach Chinese restaurant workers. This is the way we need to think. Where do we go next with the gospel? Who are the people who have not heard, and how can we reach them? Paul wrote Romans to put this on the agenda of churches like ours.

Pioneering does not necessarily mean going to some remote place. It is about what happens in our life every day. It is about whom you are going to sit next to on the bus or train. If we are “to boldly go where no one has been before”, we need to be prepared to make the effort and time to form friendships with non-Christians, and to share our Christian friends with our non-Christian friends.

3. Partnering

The third ingredient of mission is partnering. Paul tells the Church at Rome: “But now.....since I have been longing for many years to see you, I plan to do so when I go to Spain. I hope to visit you while passing through, and to have you assist me on my journey there, after I have enjoyed your company for a while” (vv. 23-24). We can see from other passages of Scripture that the phrase “assist me on my journey” is almost a technical term. As he finishes his letter to Titus Paul writes: “As soon as I send Artemas or Tychicus to you, do your best to come to me at Nicopolis, because I have decided to winter there. Do everything you can to help Zenas the lawyer and Apollos on their way and see that they have everything they need” (Titus 3: 12-13). Zenas and Apollos were gospel workers who needed support. There was no central fund, so Paul lays it on the conscience of Titus to help them on their way, ensuring they have all they need.

Paul is looking forward to catching up with people in Rome. He has never been there before, but he already knows some of them –

아프리카에 도착했을때, 천개의 마을에서 나오는 연기가 그의 시야를 가리며 사로잡았습니다. 그 모든 마을들은 복음 교회가 없었고 그들 모두는 이 세상에 소망도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를 사로 잡았고 그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수세기의 선교 사역이 지난 오늘날에는 개척자가 정말 필요한 것은 아닐지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바울의 시대보다 열배는 더 필요합니다-지금은 바울의 시대보다 10 배나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세계에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8 백만의 무슬림들은 복음을 모릅니다. 수십개의 종족들이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고 교회 하나가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과 보냅니다. 어느 커뮤니티 에서는 교회에 발도 들여놓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그들은 누구이고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중국인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화요일 새벽 2 시에 미팅을 가지기 시작한 시드니의 한 교회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할 다음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쁜 소식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들처럼 로마서에서 이것을 교회들의 과제로 돌립니다.

개척하는 것이 꼭 외딴 지역으로 가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버스나 기차에서 여러분 옆에 앉을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느 누구도 가본적 없던 곳에 담대히 간다면”, 우리는 넌크리스찬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아가고 또한 그들로 우리의 크리스찬 친구들과 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파트너가 되는 것

선교의 세번째 요소는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귀기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23-24).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나의 여정에 동행 하라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디도에게 쓰는 편지의 마지막에 바울은 “내가 아테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 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를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디도서 3:12-13). 세나와 아볼로는 서포트가 필요했던 복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중추적인 자금이 없었고 그래서 바울은 디도의 양심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게끔 그들을 돕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것을 고대 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본적이 없었으나 그들중 몇명은 이미 알고

such as Aquila and Priscilla – because he has come across them somewhere else. And when Paul tells the Roman church that he hopes they will assist him on his journey, he is not just asking for a bed for the night! Rather he is saying, “The reason I’m coming to Rome is not just to enjoy your company I’m coming to recruit a team. I want you to be the new Antioch in Rome. I want to build a base for the evangelisation of the Western world”.

There is a moving moment at the end of the movie “Schindler’s List”. Oskar Schindler had saved over 1200 Jews from certain death in the gas chambers by bribing Nazi officials to let them work in his munitions factory, and had bankrupted himself in the process. When the war is over the Jews come with their letters of recommendation to the allies, telling of how this man has helped them. At this point Schindler breaks down: “I could have done so much more!” He points to his battered Mercedes, “I could have sold that and saved ten more”. He plucks out the solid gold pin from his lapel, “This could have saved 2 more – I could have done so much more!” On that great day when we appear before the great white throne, is that what we will have to say? “I could have done so much more! That money tied up in trust funds, and buildings that were no longer being used! Why didn’t we do something about it? Why didn’t we use those resources to reach people for Christ? Why did I need a new car, that overseas holiday, an extension to my home that new computer, that new dress or shoes, an extra cup of coffee....? I could have done more!”

When Paul talks to the Roman church about helping him on his journey, this is what he means. He is going to pick his team and take their best workers – hard workers, risk-takers (they are all mentioned there in chapter 16). And he wants the church’s financial help too. Just as the church in Antioch sent out Paul and Barnabas to travel around the eastern Mediterranean with the gospel, so now he wants the church in Rome to partner with him and send him out with a team to Spain to evangelise the Western world. The question for us then, is, Will I go or will I stay? If I stay, then it must be to pay and pray.

4. Praying

That brings us to the last point: “I urge you brothers, by our Lord Jesus Christ and by the love of the Spirit, to join me in my struggle by praying to God for me” (v. 30). Praying is a struggle – it is hard work and it does not come naturally to us. “But I don’t get anything out of attending prayer meetings”, you might say. Who said you are supposed to get anything out of it? It is hard work, and you are supposed to put something into it. When the young man Joshua was fighting the battle against the Amalekites down on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프리실라 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그들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들이 그의 여정을 도울것을 희망 한다고 말할 때에, 그는 단지 하룻밤 머물 곳을 구한것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내가 로마에 가는 것은 단지 여러분과의 교제를 위한 것뿐이 아니라 팀을 만들기 위함 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로마의 새 안디옥이 되길 원합니다. 서구 세계를 위해 복음의 기지를 만들길 원합니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쉴러 리스트의 마지막에 마음을 움직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스카 쉴러는 나찌 요원들에게 뇌물을 먹여 유대인들로 그의 군수 공장에 일하게 함으로써 가스실에서 죽을 것이 확실한 1200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파산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연합군에게 쉴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왔는지를 말하러 추천장을 가지고 왔을 때, 쉴러는 울음을 터트리며 말하길 “전 더 할 수 있었어요!” 그는 그의 찌그러진 메세이디를 가리키며 “내가 저걸 팔았